

발달수준에 적합한 자극

<p>만 0-2세</p>	<p>우는 아이 자주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지나요? 울음은 아기가 말을 배우기 전까지 보호자를 부르는 유일한 의사표현입니다. 새로운 환경과 상황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고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조절해 나가게 됩니다. 오히려 울지 않는다면 감각 발달이 더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방치는 가장 나쁠 수 있어요. 아이의 울음에 바로바로 반응해 주세요.</p> <p>낮가림이 너무 심한 아이, 낮가림이 너무 없는 아이, 괜찮을까요? 낮가림은 뇌가 성숙하다는 뜻입니다. 엄마와의 분리가 힘든 분리불안과 낮선 대상이 싫은 가림을 구분해주세요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두려움을 공감해주고 충분한 수용을 통해 아이를 이해해주세요. 아이의 동의 없이 여러사람앞에 나서게 하는 것은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.</p> <p>무조건 떼를 써요 아직 자신의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부모 및 교사의 일관적이지 않은 대처로 떼쓰기를 더 조장하게 될 수 있어요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부정적 행동은 무시하고 올바른 행동은 칭찬해주세요. 위험하지 않는 요구는 들어주고 타인과 비교하거나 회유나 협박, 보상(이거 줄테니까 떼쓰지 마!)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</p>
<p>만 3-4세</p>	<p>어지르기만 하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요 주변 물건 탐색을 통해 자율성이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놀이에 집중할 때 정리를 강요하지 말고 정리정돈을 놀이처럼 해보세요. 또, 정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.</p> <p>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놀이를 즐겨요 관심사가 많아지고 쌓고 무너뜨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충분히 놀고 나면 저절로 그만 두게 됩니다.</p> <p>싫증도 잘 내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특별히 싫어하는 것 한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. 엄마와 애착 문제가 있거나 호기심을 억제당하고 있을 경우 세상에 흥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. ▶▶ 이렇게 해주세요!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잔소리 보다 부모 및 교사와 잦은 접촉으로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. 아이들마다 배우는 시기가 다르니 시행착오를 지켜 볼 수 있어야 해요.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호기심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.</p>

* 참고문헌: 아이심리백과, 신의진

관련 교육 안내

우리아이 문제행동 이해하기

- 일시 : 11. 10.(수) 10:30~12:30
- 대상 : 울주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
- 신청 : 10. 26.(화) 10:00 ~ 11. 8.(월) 12:00
- 강사 : 민동옥(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)
- 내용 : 아이들의 문제행동, 대처방법과 관련된 사례중심 내용

※ 본 교육은 울산대학교 LINC+ 학부연계 지역사회공헌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교육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
QR코드를 통해
확인해주세요

